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29호

###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그후

故 **최속현** 선수 폭행한 **김규봉** 감독·주장, 2심도 실형

나예은 아시아경제 기자

### 2020 도쿄올림픽

순위 '올림'픽 대신 가슴 '올림'을 찍하다

김서영 커버스토리 기자

### 여성 스포츠 인권

'반바지' 선수들 징계했다가...사퇴 요구 직면한 핸드볼연맹 수장들

최현준 한겨레 기자

### 선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SNS 악용한 팬심...김희진 "수년간 협박·명예훼손 시달렸다"

조효석, 이동환 국민일보 기자

### 스포츠클럽법 등

스포츠 3법, 배리어프리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전환 '초석'

김최환 칼럼니스트\_에이블뉴스

국가대표가 된 '동네 고수'?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리는 꿈

주영재 경향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 故 최숙현 선수 폭행한 김규봉 감독·주장, 2심도 실형

대구고법 1-1형사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최숙현 선수의 선배였던 주장 장윤정(32)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장 선수에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김 선수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을 때리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선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9일)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의 경우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사이클 사고방지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의 사과와 경주시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구제와 보호대책 마련,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족 입장에서는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족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이다. 더 엄한 벌을 내려 경종을 울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받았다.

# 순위 '올림픽' 대신 가슴 '올림픽'을 꺾하다

경향신문

올림픽은 스타를 창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년 연기되며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소 색다르다. 우리는 투혼과 열정에 더해 행복과 즐거움까지 내비치는 국가대표를 마주했다. 이른바 '즐기는 자'의 탄생이다. 이를 두고 'MZ세대의 올림픽'이라며 환호가 뒤따랐다.

'즐기는 자'는 자연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는 스포츠와 메달의 의미를 따져 묻는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이는 올림픽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란 질문과도 맞닿는다. 어렵사리 '즐기는 자'를 일궈낸 한국사회는 이제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

## 2020 도쿄, '즐기는 자'의 출현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수영했다. 이번 도쿄 물속에서 행복하게 헤엄친 것 같다.”(황선우·수영)

“첫 올림픽이니까 실망하지 않겠다.”(이선미·역도 87kg 이상급)

“정말 오늘 밤 높이 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우상혁·육상 높이뛰기)

2020 도쿄올림픽은 '즐기는 자'의 탄생을 알렸다. '노메달'에 그친 선수들은 더는 과거처럼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행복했다, 다음 기회가 있다,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는 등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역도 장미란 선수가 4위로 마무리하며 “아쉬움과 실망감을 드렸을까봐 염려된다”며 눈물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두고 금메달 지상주의가 사라졌다, 슬픈 은메달은 없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장인화 선수단장은 지난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금메달을 못 따 죄송하다'던 과거 선배들과 달리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만족하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자체를 즐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즐기기'와 '최선 다하기'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정윤수 스포츠평론가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는 것이 열심히 안 했다거나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만족하는 건 아니다. '원없이 했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이어 정 평론가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드문드문 있었지만 한 선수의 캐릭터나 개성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번에는 대부분 자기표현을 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했다.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 역시 '즐기는 자'였다. 이들은 “메달 색으로 잠재력을 평가할 순 없다”, “내 마음속 금메달” 등 응원을 남겼다.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달 순위를 이렇게 안 찾아본 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관람평이 이어졌다. 더 나아가 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선수들의 '배경 서사'를 풍부하게 찾아나섰다. 이번에도 출전한 요트 하지만 선수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땀음에도 아무도 중계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퍼졌고, 이밖에도 선수들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나 '짤'이 활발히 공유됐다.

다음 장 계속



# TOKYO 2020



선수들이 응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 역시 이번 올림픽의 특징이다. 탁구 신예로 떠오른 신유빈 선수는 유튜브 채널 <삐약유빈>을 개설했고, '숏컷 열풍'을 불러일으킨 양궁 금메달 3관왕 안산 선수는 팬들이 모인 채팅방에 입장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영 황선우 선수, 배구 주장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많은 국가대표가 올림픽 기간 SNS를 활발히 활용했다.

경기를 두루 챙겨본 박모씨(30)는 “그간 흔히 쓰였던 ‘효자종목’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메달 못 따면 불효자인가. 선수들의 피, 땀, 눈물을 인정하고 감동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종합 순위를 별도로 찾아보거나 의식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올림픽을 볼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박씨는 “여자배구에서 한유미 해설위원이 ‘스포츠는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라고 말했던 것에 공감이 간다. 질책, 아쉬움, 메달 획득에 대한 국가적 사명감에서 벗어나 선수들의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메달의 진정한 의미를 묻다

2021년 7월과 8월 우리가 목격한 ‘즐기는 자’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즐기는 자가 연출한 ‘훈훈한’ 광경을 두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주요 그룹인 MZ(1980~2000년대 출생)세대의 발랄함과 당돌함을 배경으로 지목한 보도가 잇따랐다. 이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MZ세대 국가대표의 즐기는 모습, 이를 향한 지지와 응원에는 단순 세대론으로는 짚어낼 수 없는 ‘아픈 맥락’이 있다.

2016 리우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 사이 한국 엘리트 체육계는 내부에서부터 크게 무너졌다. 이 5년간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행 및 가혹행위,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6월 팀원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망 전 부모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란 메시지를 남겼고, 이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정도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는 국가대표 선수를 미성년자 시절부터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밖에 유도 등 친숙한 종목에서도 미투가 이어졌다. 가장 최근엔 배구 국가대표 자매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처럼 뿌리부터 흔들리는 스포츠 생태계를 바로잡아보고자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것이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체육교육)는 “그동안 스포츠계에 일련의 큰 비극이 이어지면서 엘리트 체육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회의가 있었던 것”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선수들이 각종 부조리에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이젠 ‘메달과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세대가 바뀌어 스포츠의 본질을 즐기게 됐다고 하기엔 그동안 치러야 했던 피눈물이 많았다”고 했다.

다음 장 계속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역시 동감했다. 그의 분석이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한국 스포츠가 이래서야 되겠는가’란 여론이 비등했다. 특히 고 최속현 선수가 사망했을 때 여론은 ‘그렇게 해서 딴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국민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지켜봤다. 그 결과 국가대표에 발탁돼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정 평론가는 이어 “과거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나 감독이 ‘메달로 보답하겠다’고 하곤 했다. 그런데 점점 ‘경기로 보답할 필요 없다, 그런 메달은 의미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서 4위를 해도 박수를 쳐준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민적 성숙에 스포츠 문화도 같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런 시대는 지났다

엘리트 체육의 오랜 목표였던 ‘국위선양’이 시대가 지나며 자연스럽게 빛이 바랜 점도 ‘즐기는 자’ 출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나 국가 내부적으로나 메달 순위로 ‘존재 증명’을 해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메달 획득이 국가와 민족의 성취라는 인식도 열어졌다. 메달을 따고 나서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울먹이는 것은 낡은 풍경이 됐다.

김정호 서울대 외래교수는 “메달을 많이 딴다고 해서 바로 국격이 높아지거나 선진국이 되지는 않는단 사실을 다들 알게 됐다. 애초에 올림픽 자체가 강대국이 유리한 수영이나 육상 같은 종목에 메달을 많이 편성해 금메달 인플레이션이 있다. 결국 올림픽 성적은 허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메달을 보고 예전엔 민족과 국가를 먼저 떠올렸다면 지금은 선수 개인에게 집중한다. 한 개인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됐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싸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부상으로 기권한 마라톤 오주환 선수를 두고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다. (다른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봐야겠다”고 한 중계(MBC)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윤수 평론가는 대중이 경기결과를 보는 시선이 넓고 다양해진 점을 짚었다. 메달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세계 5위권에만 들어도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기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체에 의의가 큰 종목도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메달을 땀냐, 못 땀냐를 봤다면 이제는 종목마다, 선수마다 다른 성취 수준을 대중이 이해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한체육회만큼은 메달 순위에 신경을 쓴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16위로 여정을 마쳤다. 순위에 반영되지 않는 4위 종목은 12개였다. 도쿄에서 폐막식이 진행된 지난 8월 8일 대한체육회는 결산 기자회견을 열어 ‘금메달 7개-종합 10위 이내’, ‘올림픽 5회 연속 10위 이내 진입’이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신진 선수와 종목을 발굴해낸 점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한국 선수단이 선전했으나 메달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귀국하면 각 연맹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청문을 하려고 한다.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체 평가는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를 보인다. 정용철 교수는 “체육계 내부의 반성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선수들이나 국민의 시각은 많이 바뀐 데 비해 올림픽을 준비하고 관할하는 주체들이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은·동 랭킹 매기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기성세대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한줌도 안 되는 엘리트를 소비한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 올림픽, 기로에 서다

한국사회는 이제 올림픽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메달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보도하는 방식에도 한층 진보한 잣대를 들이댄다. KBS 이재후 아나운서는 폐막식을 중계하며 “비장애인 올림픽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친다”고 표현했고, 이는 유일하게 패럴림픽을 안내한 중계였다는 점에서 언론과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MBC가 개막식에서 참가국을 무례하게 소개한 것과 한국과의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은 루마니아를 두고 “고마워요 루마니아”란 자막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비판이 먼저 나왔다. 결국 이는 박성제 MBC 사장의 사과로까지 이어졌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한일전에서 허구연 해설위원이 수비 실책을 한 일본선수에게 “고마워요 사토”라고 한 것이 일종의 ‘밈’이자 유행어가 됐던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메달 순위 따지기가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란 질문으로 이어진다. 김정호 교수는 “스포츠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이는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노선에서 벗어날 경우 성적이 자연스레 떨어지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위와 관계없이 응원하기와 엘리트체육으로 국위선양하기란 두가지를 동시에 짚 순 없다. 지금은 생활체육 위주로 갈지, 엘리트체육을 이어갈지의 중간 단계에 있다. 올림픽에선 열심히 싸우고 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스포츠를 그 자체로 즐기는 시선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즐기는 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침 내년엔 큼직한 국제스포츠 행사가 줄 잇는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타르 월드컵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반바지’ 선수들 징계했다가... 사퇴 요구 직면한 핸드볼연맹 수장들

비키니 수영복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 비치핸드볼 선수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국제 핸드볼 단체의 회장들이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각)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스포츠인권 단체 7곳이 국제핸드볼연맹 회장 하산 무스타파와 유럽핸드볼연맹 회장 마이클 워더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대표팀은 지난달 19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 비치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비키니 하의가 노출이 심하고 생리할 때 불편하다”며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었다. 주최 쪽인 유럽핸드볼연맹은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수 1인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포츠인권 단체들은 비치핸드볼 선수들에게 비키니를 입도록 한 핸드볼 연맹의 규정이 “노골적인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럽핸드볼연맹 규정을 보면, 비치핸드볼 여자선수들은 경기 때 유니폼으로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 상의는 스포츠 브라를 입고, 하의는 옆면이 10cm를 넘기면 안된다. 남자선수들은 딱 달라붙는 런닝과 무릎 위 10cm 이내의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

이탈리아 스포츠인권 단체 ‘어시스트’를 이끄는 루이사 리지텔리는 “핸드볼연맹의 유니폼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착취해서는 안된다”며 “그들은 사건 이후 규정을 바꾸지도 않았고, 벌금도 확정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비치핸드볼은 모래사장에서 하는 핸드볼 경기로, 보통 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여자 선수들은 비치발리볼과 비슷하게 비키니를 유니폼으로 착용해야 하고, 남자 선수들은 여자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역시 규정에 따른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성상품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회들이 이런 복장 규정을 두는 것은 관중과 언론, 후원사 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국제배구연맹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치발리볼 선수들은 관중과 언론, 후원사 등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태양과 모래, 바다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변에서 하는 경기인만큼 여자선수들이 비키니를 입는 것이 관객과 후원사 유치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최근 막을 내린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독일 여자체조 대표팀은 기존 원피스 수영복 형태의 유니폼 대신 발레 연습복의 일종인 유니타드를 입고 출전했다. 독일팀의 사라 보쉬는 <비비시>(BBC)와 인터뷰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안심된다. 모두가 유니타드를 입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mailto:haojune@hani.co.kr)



# SNS 악용한 팬심... 김희진 “수년간 협박·명예훼손 시달렸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의 주인공 김희진(30)이 수년간 자칭 팬들에게서 겪은 협박·명예훼손 피해사례를 공론화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희진 외에도 최근 SNS 등으로 흐릿해진 ‘팬 서비스’의 경계를 악용한 스토킹 가해 사례가 빈번하다.

김희진의 법률대리인인 김진우(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희진은 지난 몇 년간 다수 가해자로부터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시달려왔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구단에 대해서도 가해 행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관용적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선수라면 팬들과 ‘셀카’나 사인 등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가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마치 선수와 사적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서 “친분이 있다는 증거라며 이를 디씨인사이드, 네이트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인격이 좋지 않다거나 일탈을 했다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선수가 팬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다’면서 선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구단에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는 2016 리우올림픽 무렵부터 김희진에게 피해를 입혔다. 인스타그램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강요하거나 사칭 SNS 계정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거나 조작·합성한 이미지를 유포했다. 김희진의 성적 취향 관련한 낭설을 퍼뜨린 사례도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자기만의 세계, 과대망상에 빠진 사례도 있다”며 “오랜 시간 피해를 겪어온 만큼 선수도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피해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8월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윤종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자신이 윤종규와 교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가해자는 인스타그램에 윤종규와 나눴다는 SNS 캡처 사진을 올렸다. 윤종규가 욕설을 섞어가며 동료와 감독을 비방했다는 폭로였다. 그러나 당시 다른 팬들이 사진 내용이 합성·조작임을 알아냈고 소속팀 FC 서울 구단과 윤종규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같은 일이 잦아진 데는 선수들의 ‘팬 서비스’ 양상이 SNS 시대를 맞아 바뀐 영향도 있다. 최근 인기 프로스포츠를 중심으로 선수가 SNS로 팬의 응원메시지에 직접 답변하거나 유튜브 등에서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다. 과거 경기장 혹은 언론을 통해서만 만났던 선수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게 되면서 프로선수로서 팬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와 사생활 침해 사이의 경계선이 흐릿해졌다. 프로선수들은 대개 구단 소속이라 선불리 개인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는 구단 이미지에 악영향이 미칠까 봐 함부로 공론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선수가 김연경처럼 독보적으로 위상이 뛰어나다면 그나마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론화 때 오히려 ‘뭐나 된 줄 안다’며 비난받기 십상”이라며 “위상이나 인기와 상관없이 피해를 봤을 때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대외협력위원장은 “소속 연맹과 구단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여자 배구처럼 팬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스포츠라면 비슷한 사례가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 혹은 팬클럽도 때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 프로스포츠는 아직 그런 예가 드물다”면서 “선수들이 대외활동을 하며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수와 팬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처럼 낭설 유포 등 명예훼손 사례가 아니라면 선수가 직접 나서도 SNS상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10월 21일부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처벌 대상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는 “스토킹범죄도 다른 신종 범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며 “SNS 상 스토킹이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 스포츠 3법 배리어프리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전환 '초석'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장애인 전문체육인 포함)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이 세 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고 한다.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7월 23일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을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것.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다.

스포츠 기본법에서는 스포츠에 관한 국민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장애인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다음 장 계속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텃다.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기본'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 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정하게 이념화된 '국민'이 아니라 보편 인권 차원의 '모든 사람'이 이 법에 해당 되며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 관계의 형성이 이뤄지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에 스포츠가 기여 하는 것이 '스포츠 기본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등 스포츠 3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 없는 스포츠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대표가 된 '동네 고수'?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리는 꿈

“힘 빼고 쳐야 해요. 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 둘, 그렇지.”, “자세가 밑으로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릎은 가만히 놔두고 스윙만 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탁구공이 탁구대와 라켓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낸다. 소리가 끊기는 사이엔 강사의 지도가 더해진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의 강습생은 젊은 강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지난 8월 11일 오후 찾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용인스포츠클럽에선 탁구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업은 거리 두기를 위해 탁구대당 2명씩 인원을 제한하고, 사이에 탁구대 한개씩 비우고 진행됐다.

이 스포츠클럽이 등지로 삼는 곳은 용인시국민체육센터이다. 샤워실과 탈의실, 탁구대를 비롯해 농구와 배드민턴, 댄스, 체조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탁구 수업을 듣는 김선자씨(41)가 배드민턴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귀갓길에 나섰다. 김씨네 4인 가족 모두 이곳 회원이다. 김씨는 “아이들은 뛰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면서 “탁구도 가르치고 싶은데 아직은 활동성이 더 높은 배드민턴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탁구를 시작한 지 6년째인 그는 스포츠클럽의 코치진이 최고 수준이라면서 “스포츠이다 보니 이겨야 더 재밌는데, 선수 출신 교사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콕콕 짚어 잘 가르쳐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2020년 1월 문을 연 용인스포츠클럽은 공공스포츠클럽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 다연령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전문 지도자가 다양한 종목·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스포츠클럽이다. 3~5년간 4억~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선수 발굴과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2013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지난 7월 21일 기준 전국의 공공스포츠클럽 수는 201개이다. 최소 5개 종목을 운영하는 대도시형(68개), 3개 종목을 제공하는 중소도시형(49개), 1개 종목을 제공하는 학교연계형(84개)으로 나뉜다.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선순환 기대

국가가 아마추어 선수를 육성해 국가대표로 선발한 후 병영식 선수촌에서 훈련시키는 ‘국가 아마추어리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선수촌에서의 합숙훈련이 어려워진 면도 있다.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1차 통로였던 학교 운동부도 쇠락하고 있다. 성적 지상주의라는 압박감에 선수들은 지치고, 폭행, 성추행 등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학부모도, 학교도 운동부를 꺼린다. 학령인구가 줄고, 스포츠 사교육 등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진 것도 원인이다.

엘리트체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생활체육의 토대는 아직 넓지 않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이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이지현 용인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특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선순환이라는 장점을 강조했다. 대회 성적이나 교장의 성향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학교 운동부와 달리 공공스포츠클럽에는 정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배치돼 전문선수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 사무국장은 “여러 종목을 함께하면서 전문선수를 키울 수 있고, 지도자를 배양할 수도 있다”면서 “다양한 학교에서 선수가 오다 보니 서로 간의 경쟁과 자기개발 측면에서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이종헌 광진구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학교 체육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법은 스포츠클럽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교 체육도, 기존의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도 대안이 아닌 상황에서 스포츠 과외라는 사교육으로 흘러가게 둘 순 없다”면서 “생활체육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꿈나무를 발견해 자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의 의무와 책임이다”고 말했다. 황선근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과장은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고, 각 종목 별로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생기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사회 통합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의 지도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봤다. 세종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농구를 지도하는 김민정 코치(22)는 “학교 운동부에선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고, 성적을 내야 지도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압박감 탓에 인권문제가 터지기도 하는데 스포츠클럽에선 아이들이 즐기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에서 두각을 나타낼 경우 엘리트 과정으로 연계되는 과정도 잘돼 있다. 박상운 용인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코치(32)는 “가르치는 학생이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고, 자신도 전문선수가 되고 싶어한다면 학부모 상담을 거쳐 배드민턴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준다”고 설명했다. 김 코치는 클럽에서 취미로 운동선수를 하다 전문선수로 넘어가 입상하는 사례도 자주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에선 복싱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 지역의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소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의 구심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이 건강을 유지하고,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점이 크다. 이종헌 사무국장은 “하루 쉬면 왜 쉬냐고 항의할 정도로 노인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데 이분들에게 스포츠 활동은 건강을 증진하는 수단이자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면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쌓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사회 통합 기능을 높이려면 다목적 체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은 에어로빅, 수영, 야구 등 개별 종목별로 시설이 운영되는데 다목적 종합 체육관에 여러 시설을 두면 가족이 함께 운동할 수 있다. 이종헌 사무국장은 “지금은 아버지는 아빠대로 조기축구회에 가고, 어머니는 엄마대로 에어로빅 학원에 가고, 아이는 자기네끼리 농구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개별 종목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스포츠 참여가 이뤄져야 가족 간, 계층 간 소통이 이뤄지고,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별로 회비를 내는 방식을 벗어나 연간 회비로 클럽의 소속감과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상견례나 모임 등 모든 동네 행사가 스포츠클럽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프로그램별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클럽 회원으로 등록해 연간 회비를 내면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네마다 이런 체육관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도심에선 이렇게 쓸 땅이 많지 않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헌 사무국장은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청과 교장이 꺼리지만 방과 후엔 책임 소재를 스포츠클럽이 지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에 학교 체육 시설 개방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 코로나19로 운영 위기, 자립 위한 지원 필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기초지자체 한곳당 공공스포츠클럽 한곳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229개를 채우면 끝난다. 그 이후엔 스포츠클럽법이 도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스포츠클럽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 복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동호회,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예정하고 있다. 동호회가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 선정되면 지정스포츠클럽이 돼 정부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2019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광진구 스포츠클럽이나 용인스포츠클럽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라는 취지인데 한창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수를 늘려야 할 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여담기를 반복하면서 두 스포츠클럽 모두 제대로 운영한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관이 폐쇄되거나 백신접종센터 등으로 이용되면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광진구 공공스포츠클럽은 임시방편으로 민간 시설을 임대해 시니어 당구교실을 열고, 한강 윈드서핑장을 이용해 수상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기범 농구교실과 함께 실외 농구장에서 청소년 농구교실도 열어 꽤 호응을 얻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두기 4단계가 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용인스포츠클럽도 탁구,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재개했지만 농구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자립을 위해선 재정과 인력,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이종현 사무국장은 “3년 지원 기간 회원을 늘리고,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날아갔다”면서 “지자체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사용료로 내는데 이 부담만 줄여도 흑자는 아니어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내년 6월 시행되는 스포츠클럽법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 3개월 연장 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면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끝난 이후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내년이 되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근 과장은 “선수 양성이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 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대부분 지역 체육회가 맡는 지자체의 스포츠사업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지현 사무국장은 “교육청이 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사업이나, 경기도의 경기스포츠클럽 사업에 지원해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사업으로 지원하면 훨씬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Q플러스] 시대변화에 뒤쳐진 올림픽 보도...남겨진 속제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623&ref=A>

올림픽 선수가 쓰아올린 작은 공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1522>

“올림픽 최고 스타는 바일스...용기 있는 기권으로 선수인권 향상”

<https://www.khan.co.kr/sports/sports-general/article/202108102152005>

육아한다고 후원 끊겼다...펠릭스 '메달 11개' 기적 그뒤엔

<https://news.joins.com/article/24124528>

美·유럽서 커져가는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08/10/FJD7VPQWSNESZLT4VSZUL7K5KI/>

[?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08/10/FJD7VPQWSNESZLT4VSZUL7K5K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모국어도 못 알아듣는 14세 金소녀...“다이빙 기계냐”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4125337>

“장애인도 즐기고 싶다”...요원한 올림픽 ‘배리어프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9500107&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9500107&wlog_tag3=naver)

올림픽 정신 못 담은 중계·보도... '재미' '메달' 너머 지상파 역할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94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